

하나됨과 나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화를 누리십시오”

< 고린도전서 1장 3절 >

-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한 해의 삶을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드렸습니다. 예물로 드린 과일은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달합니다.
- 감사절 찬양예배가 저녁 7시에 있습니다.
- 꾸러기학교 졸업여행이 11일(화)~14일(금)까지 제주도에서 있습니다.
- 멋쟁이학교 마라톤이 15일(토) 상암 월드컵공원 평화광장에서 있습니다.
- 연령별사랑방 연합찬양모임이 16일(일), 오후 1시30분에 자연예배당에서 있습니다.
- 공동체 김장이 13일(목)~14일(금)까지 있습니다.
- 수능을(14일) 보는 학생들과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 지난 선교바자회 수익금은 정산이 마무리되어, 예정되었던 선교지에 전달했습니다. 수고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 고마움을 표해야 할 분들

나눔의 식탁 : 다함께

강단을 꽃으로 : 석지인 전도사 (생일 감사)

신협(현금계좌) 사랑방교회(정재훈) 131-021-578132

농협(선교공동체계좌) 대한예수교장로사랑방교회 225036-55-003053

주일 교회 승합차 운행시간 오전 9시50분 의정부역 6번 출구 영풍문고 앞

코이노니아를 지향하는 사랑방공동체

11187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무림길134-178

http://www.sarangbang.org 전화:(031)544-1615 FAX:(031)544-1618

역할공동체 : 생활공동체 예배공동체 교육공동체 사역공동체 선교공동체

선 교 지 : 타지키스탄 대만 일본 요르단 중국

제 42 - 45호

2025년 11월 9일

사랑방공동체

TK2000

“코이노니아를 지향하는 새 천년”

(고린도후서 13 : 13)

사 랑 방 은

주인이 거하는 방, 사람을 만나는 방, 뜻을 모으는 방입니다.

이웃공동체 탐방기

밝아오는 토요일 새벽, 여러 사랑방공동체 지체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한가득 의류 마대를 싣고 있는 스타렉스로 하나둘씩 도착했습니다. 경남에 위치한 민들레공동체와 오두막공동체를 방문하기로 했던, 선교공동체 및 참여희망자들이었습니다. 참여하지 못해 미안하다며 건네주신 먹을거리 한아름을 감사히 받아들고, 정재훈 목사님의 기도로 차량 2대, 총 9명은 출발했습니다.

내비게이션에 보이는 도착 예상 시간은 11시30분. 4시간 반을 달렸을 때의 거리였습니다. 그 시간동안을 잘 보내기 위해서 김밥과 간식거리들을 미리 준비해주셔서 든든하게 달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윽고 출발할 때는 분명 드러나지 않았던, 주말의 차량 정체 구간이 서서히 생겨났습니다. 차량들이 길게 늘어선 줄에서 초조하게 기다렸지만, 결국 1시간 이상 늦어버리는 사태가 초래되고 말았지요. 죄송한 마음을 품고서 도착한 민들레공동체에서는 김인수 대표님이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인사를 건넨 이후 시작된 탐방에서는 지난 번 수해를 입어서 파괴되고, 또 복구한 곳들을 보여주셨습니다. 아직도 수습되지 않은 산사태 구역도 있었고, 집채만 한 바위들이 개울가에 박혀있어 당시의 상황을 짐작케 했습니다. 그 외에 대안학교, 대안기술센터, 게스트하우스, 양계장, 카페 등을 소개해주셨습니다.

함께 자리에 앉아서 농촌과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삶을 바치듯이 살아오신 삶의 궤적에 대해서 간략하게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 속에는 지리산 부근 복음화가 가장 안 된 곳에서 시작하여, 고정 수입도 없이 모임과 훈련, 파송을 거듭하며 복음을 전했던 과정이 있었습니다. 특히 농촌 속에서 가진 것 없는 사람들과 공동체를 형성하며 다양한 분야(신앙, 경제, 교육 문화 등)의 자급자족을 실현하려 노력하고, 자연경관과 어울리도록 아름답게 터전을 가꾸는 고유의 정신은 경이로웠습니다.

대표님 외에도 다른 선교사님과 전도사님이 계셔서, 그분들의 이야기기도 함께 들을 수 있었습니다. 해외에서 생존수단이 빈약한 사람들을 도와 자립시켰던 이야기, 타국에서 공동체생활을 이룩하고 생태적 경제활동을 함께 이루며 학교까지 운영해 오신 이야기 등, 참 귀하고도

은혜로운 사역의 이야기들이었습니다. 흘러가는 시간이 야속하게도 떠날 때가 되자, 가져다 드린 것보다 더 받아오는 것 같은 느낌으로 배움을 받았습니다. 건강과 평안을 바라며 아쉬움을 달래야 했습니다.

중간에 맛있고 몸에 좋은 약초밥상을 한껏 먹으며 행복과 건강충전을 하고, 다음으로 향한 곳은 오두막공동체였습니다. 많은 분들이 도와주셔서 성황리에 마무리 되었던, 사랑방공동체 연합선교바자회의 결과물을 전해드릴 때가 된 것입니다. 산골 깊숙이 자리한 곳에서 만난 공동체는 마지막 방문 이후로 이런저런 건물들과 부지가 많이 늘어나 있었습니다. 5년 걸려 지었던 초기 건물은 박물관처럼 꾸며져 있었고, 계곡을 따라 길게 늘어진 부지는 소박하고 편안해보이면서도 해가 저서 제대로 볼 수 없던 것이 안타까울 정도로 아름다웠습니다.

주변을 돌아본 이후로는 이재영 대표님께서 처음엔 출소자와 알콜중독자와 힘든 공동체생활을 이어오셨다는 것, 떠밀리듯이 다른 이 없는 곳을 찾아 도착한 이곳에서 교회를 중심으로 마을 공동체를 지향하고 만들어가고 있다며 대략적인 역사와 근황에 대해 설명해주셨습니다. 지자체에서도 관심을 가질 정도로 마을 인구가 늘어나는데 공헌하고, 다양한 사람들이 상호보완적으로 지내지만, 생활수준이 크게 차이나지 않도록 집의 크기 등을 제한한다는 것도 인상적이었습니다. 산더미 같은 감과 직접 지은 농산물로 만든 간식을 또다시 받아 들고서, 어찌 드린 것보다 더 많이 받아가는 것 같은 풍성함과 아쉬움을 되새김질하며 귀갓길에 올랐습니다.

왕복 9시간이 넘었던 이 여정은, 거리가 멀긴 하지만 이웃임에 분명한 형제자매들과의 귀하고도 반가운 만남이었습니다. 백문(百聞)이 불여일견(不如一見), 하나님나라의 삶을 구현하고자 애쓰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글이나 귀동냥으로는 알 수 없던 어떤 빛나는 것을 본 듯한 경험이었습니다. 더불어 우리의 공동체적인 삶 또한 외로운 길이 아니며,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함께 나아가는 이웃들이 존재한다는 것도 피부로 느낄 수 있던 시간이었습니다. 머지않아 또 다양하게 반짝이는 형제 별들에 다가가보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이웃 공동체들을 위해서 기도해주세요.

한주간의 말씀

“ 그리하여 여러분은, 흠이 없고 순결해져서,
구부러지고 뒤틀린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하면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별과 같이 빛날 것입니다. ”
< 빌립보서 2장 15절 말씀 >

<수요기도회>

인도 : 정재훈 목사

찬송 : 335, 419 / 429

기도 :

성경 : 사사기 12장

제목 : 지나친 에브라임의 욕심이 비극을 일으키다

1. 내용: 이스라엘에 큰 내전이 발생하였다. (What)

<문단구분>

1~7절 에브라임과 길르앗의 싸움

8~10절 사사입산

11~12절 사사 엘론

13~15절 사사 압돈

2. 의미: 에브라임이 선을 넘다. (Why)

1) 에브라임이 요단강을 넘어서 입다와 길르앗을 치러 오다.

2) 에브라임은 기드온에게도 같은 방식으로 항의하였다.

3) 에브라임은 스스로 가장 뛰어난 지파로 여겼다.

3. 적용: 공동체의 분파를 주의하자. (How)

1) 특권 의식을 조심하자.

2) 공동체는 정치적인 조직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이다.

3) 공동체의 분파주의를 넘어서자.

성서일기

위험을 앞둔 브루더호프의 고백

11월 10일 밤, 독일 비행기가 애슈튼 필즈에서 북쪽으로 100킬로미터 떨어진 코번트리 시를 쑥밭으로 만들었다. 폭발로 인한 불길은 밤새 타올랐다. 그로부터 사흘 후, 코번트리가 계속 불타고 있는 동안 안네마리는 산고를 겪었다. 남자아이가 태어났고 블룸하트를 기념하여 요한 크리스토프라고 이름 지었다. 아이가 태어나고 며칠 동안 폭탄이 계속 떨어졌다. 어찌나 가까이에서 떨어지던지 병원의 벽들이 흔들릴 정도였다.

안네마리가 크리스토프를 데리고 집으로 왔을 때 애슈튼필즈는 부산했다. 사람들은 커다란 포장용 나무상자들에 침구와 주방기구, 책, 인쇄기기, 농기구까지 온갖 물건을 가득 담고 있었다...

망명자들은 돈이 거의 없었고, 자신들의 새로운 집이 될 나라에 대해 전혀 몰랐으며, 도착해서 지낼 곳도 준비되어 있지 않았다. 게다가 그들이 앞두고 있는 대서양 횡단 항해는 너무나 위험해 무사히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을지 의심스러웠다. 그들이 이용하게 될 블루스타해운은 독일 해군의 표적이 되고 있었고, U보트의 어뢰 공격에 따른 영국 측 피해가 증가 추세에 있었다. 그러나 작별의 순간이 엄숙하기는 했지만 눈물바다는 아니었다. 에미는 그 순간을 이렇게 표현했다.

“우리는 언제나 믿음으로 살아왔다.

이제와서 우리를 인도하실 하나님을 믿지 않을 이유가 있겠는가?”

- 꿈꾸는 인생(피터 맘슨 저)에서 발췌

지체들의 삶

주일공동예배

오전11시

하나님의 부르심과 응답

- 초청의 말씀
- *예배의 찬송
- *기원의 기도
- *기원찬송

시 편 100 : 1-5
28

인도자
다함께
인도자
다함께

영광 영광

죄의 고백과 용서

- *참회의 기도
- *용서의 말씀
- *신앙고백
- 고백의 찬송
- 공동기도
- 목회기도

요한복음 5 : 24

인도자
다함께
다함께
다함께
인도자

301

하나님의 뜻과 말씀선포

- 성경낭독
- 성가대 찬양
- 설 교 “ 기쁨으로 주께 나아갑시다 ” 정재훈 목사

빌립보서 2 : 1-5
590, 592

설교자
다함께

의탁과 섬김의 삶

- 의탁의 기도
- 응답의 찬송
- *봉헌기도
- *영광찬송
- *위탁의 말씀
- *강복기도

454

설교자
다함께
인도자
다함께
설교자
설교자

410(3)

* 표는 일어서서 예배를 드립니다.

† 헌금은 들어오실 때 헌금함에 자유롭게 하십시오.

예배를 안내 : 석용범 박영선 / 봉헌위원 : 조민아 / 꽃꽂이 : 김영화
돕는 이들 반주 : 김영희 이근자 정다운 임은숙 이예은
진시우 김보경 진나우

예 배

공동기도문

감사의 예배를 드리게 하시는 하나님,
좋은 일 뿐만 아니라
감사하기 어려운 일에도 감사하게 하시고,
오늘의 감사가 더 많은 기쁨을
누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아멘.

기쁨으로 주께 나아갑시다

상황을 넘어선 기쁨.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 속에서 빌립 보서를 썼습니다. 자유가 제한된 상황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도 빌립보 교인들에게 기뻐할 것을 권면합니다. 권면하는 사람은 자신이 먼저 경험한 것을 권면하기 마련입니다. 그는 감옥 안에서도 성령 안에서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다.

자신을 비움. 이 기쁨의 비결은 그리스도를 닮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권면합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어느 것 하나 남기지 않으시고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비워내셨습니다. 단 하나 남아있는 것은 바로 겸손입니다. 그리스도의 비움은 주님의 겸손을 의미합니다.

주님께 드림. 우리 안에서 활동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기쁨을 누리는 사람들은 그 안에 원망과 시비를 없애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 가운데 빛으로 드러나려면 남을 원망하는 대신 자신을 내어놓는 삶의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나의 모든 것을 믿음의 제물로 드리는 헌신의 약속은 하나님을 기쁘게 합니다.

수요기도회 / 저녁 7시 30분 / 인도 : 최기찬 전도사 / 기도 : 나송주 집사

< 사랑방공동체학교 소식 >

꾸러기학교

꾸러기들은 낙엽 긁어모으기랑 낙엽 뿌리기를 좋아합니다. 끌어 모아도 자꾸 도망가는 낙엽이랑 놀니다. 잔가지를 모아 모닥불을 피우시는 걸 보고는 낙엽을 던져 넣어봅니다. 확 피어오르는 연기를 피해가며 살금살금 놀니다. 긴 꼬치에 마시멜로를 꽂아 구워 먹어봅니다.

11월에는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이라는 주제로 활동합니다. 다큐 '고래와 나' 극장판을 화요일 수요일 이틀에 나누어 함께 보았습니다. 어린 꾸러기들이 잘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을지 궁금했는데 꾸러기들은 바로 어린 고래의 마음을 느끼며 마음 아파합니다. 목요일에 마당과 주차장을 돌며 쓰레기를 찾아서 치우는데 함부로 버려진 쓰레기가 바다까지 갈까봐 아기 고래가 먹을까봐 열심히 찾아서 치웁니다.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날마다 감사한 일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그림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세상을 만들어주셔서 동물들을 만들어주셔서 예쁜 꽃들과 나무와 맛있는 열매를 주셔서 가족을 주셔서 꾸러기선생님들과 친구들을 주셔서 나를 만드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감사하답니다.

< 교사 : 정승희 >

어린이학교

일주일 내내 청명한 가을날을 만끽했습니다. 나뭇잎과 함께 출렁 출렁 트램플린도 타고 나뭇잎을 한아름 안고 날려 보기도 했습니다. 눈부신 가을날을 볼 수 있고 그 속에서 공부 하는 것이 복을 누리는 것임을 성서일기 시간에 나누었습니다. 이런 기막힌 배경으로 6학년들은 졸업 사진을 찍으며 어린이를 갈무리하기 시작 했고 밑에 학년 배움과 가르침

들은 제기차기, 고무줄 놀이를 배우며 “정말 어렵지만 정말 재미있어요” 헉헉 숨이 차도록 신나게 놀아 보았습니다. 이번 주도 금요일 하교차를 회차 한 후 내리며 휴~ ! 만감이 교차하지만 미소가 먼저 지어졌습니다.
< 교사 : 하경임 >

멋쟁이학교

아직도 단풍이 물들고 있는데 서리가 내려앉기 시작합니다. 11월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는 것이 아직도 믿겨지지 않지만, 멋쟁이들의 일상도 계속해서 재촉하듯 다가옵니다. 11월 말에 있는 종강발표회를 준비하기 위한 학생전체회의가 있었습니다. 대본위원회가 꾸러져서 종강까지 열심히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화요일에는 신나는 생일파티가 열렸습니다. 간식과 함께 퀴즈를 푸는 멋쟁이들의 얼굴엔 미소가 한가득 이었답니다. 사회예선 경주 APEC으로 요란한 가운데, 멋쟁이들도 함께 <APEC과 국제 정세>의 주제로 공동심화학습을 계속 진행하며 뜻깊은 배움의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열린수업에서는 영화 <투모로우>를 입이 떨어지도록 흥미진진하게 관람했습니다. 멋쟁이들에게 자연과 사람에 대해 생각해보도록 만들어주었습니다. 또한 이흥인 멋쟁이 추진으로 모든 멋쟁이들이 함께 축구 유니폼을 갖추기로 했습니다. 다함께 같은 옷으로 맞춰 입고 실력을 뽐낼 날이 그려집니다.

다음 주에는 6학년이 수능을 볼 예정입니다. 이 커다란 언덕을 넘어가는 6학년을 위해 기도해주세요. 그리고 목금 동안 공동체김장을 할 예정입니다. 다함께 수확하고 절이고 썰고 버무리는 맛들어진 과정을 통해서, 김장하는 법도 배우고 맛있게 먹을 김치가 기다려집니다. 마지막으로 토요일에는 대망의 마라톤이 있습니다. 첫 하프 코스도전자를 비롯해서, 여러모로 특별한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종강까지 모두 건강 잃지 않고 최선을 다하길 바랍니다.

< 교사 : 이어진 >

단 감

고등학교 때 친구네 집에 놀러갔을 때 일이다. 친구 엄마께서 단감을 꺾어주셨는데, 내가 잘 안 먹으니까 손에 들고 먹으라고 주신 적이 있었다. 감을 잘 안 먹던 나는 '제가 별로 안 좋아해서...'라며 말끝을 흐렸는데, 친구 어머니께서 '어른이 주면 싫어해도 먹어봐야지!'하시는 통에 얼른 받아 입에 넣었던 기억이 있다. 그 이후로 단감을 보면 친구 어머니를 생각하며 한 두 개씩은 먹었던 것 같다.

그리고, 결혼하고 나서 감이랑 좀 가까워졌다. 가을이 되면 단감을 한 상자씩 보내주시고, 또 겨울에는 직접 꺾아서 넣어놓은 곳감을 빼주신다. 가끔 대봉감을 보내주실 때는 전화로 한참을 설명하시면서 말랑하게 익혀서 먹으라고 당부를 하신다. 그런 걸 보면 감은 참 신기하다. 종류도 많고 먹는 방법도 다양하니 말이다.

이번 추석에는 남편이 시골 집 뒤에 있는 감나무에서 감을 따다. 대나무 장대 끝에 칼집을 내서 그 틈에 감나무 가지를 끼우고 비틀면 감이 툭 따진다. 간혹 따다가 떨어뜨리긴 했지만 까치밥 몇 개 남겨두고 한 바구니를 따다. 남편은 마트에서 사는 것보다 나무에서 따먹는 것이 맛있다고 자랑 아닌 자랑을 했었는데, 이렇게 따먹으면 정말 맛있겠네. 생각이 들었다. 직접 딴 감을 집까지 가져와서 앞집에 사는 감을 엄청 좋아하시는 권사님께 몇 개 드렸는데 역시나 대환영을 받았다.

길을 오가며 감나무를 보면 초록색 나뭇잎 사이로 주렁주렁 열린 주황색 감이 참 탐스럽고 풍성해 보인다. 추수감사절이 되니 감나무처럼 나에게도 열매가 주렁주렁 열려서, 사람들이 따먹으며 행복해하는 상상을 해본다. 누구도 마다하지 않고 대환영을 받는 열매를 맺길.

디아코니아사랑방 노미현 사모

<수요 정오기도회>

인 도 : 이어진 전도사

찬 송 : 292장, 428장, 591장

성 경 : 이사야 12장

말 씬 : 주님께 감사드리자

중보기도 :

1. 세계평화와 선교를 위해 <예닮교회를 위해>

예닮교회는 성경 내용을 재현한 '노아의 방주' 목공 작품 등, 교인들이 함께 10년 이상 협업하여 사역과 전도활동에 힘써왔습니다. 현재 터전과 사고를 겪은 형제가 있는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 함께 기도합니다.

2. 교회갱신과 공동체를 위해 <민들레, 오두막공동체를 위해>

- 하나님나라의 삶을 실천하고자 하는 두 공동체의 회복을 위해
- 공동체탐방을 통해서 아름다운 교제가 있기를

3. 지역사회와 우리 공동체 위해

- 1) 환절기 지체들의 건강을 위해
- 2) 추수감사주일에 감사의 마음들이 은혜롭게 모이도록
- 3) 수능을 앞둔 수험생들을 위해

<생활공동체 소식 >

주초에는 강추위로 두꺼운 옷을 여러 겹 입고 생활을 했고, 주 후반에는 공동체 마당에 가득한 가을햇살을 만끽했습니다. 커다란 호박과 박은 모두 따고 밭에는 무와 배추를 비롯한 김장채소들이 자라고 있습니다. 이번가을에는 큰 비들이 내려 배추수확에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번주간에 공동체 김장을 하는데 조금 걱정입니다. 농사에 애를 많이 쓰시는 식구들에게 위로와 격려의 마음을 전합니다.

< 장영미 전도사 >